

청소년 문학과 21세기 소녀의 귀환

-여성작가의 청소년 소설을 대상으로

김은하*

차례

1. 서론
2. 어머니-딸 플롯과 추방당한 아버지
3. 성숙한 육체의 귀환, 판도라 상자 속의 소녀
4. 소녀 루저들과 모험 서사의 변이
5. 맺음말

국문초록

최근 소녀는 지배 문화를 횡단하고 반란하는 능동적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 문학에서 소녀들의 성장은 더 이상 아버지의 법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순응적 여성성을 획득하는 희생적 통과제의의 시간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로 아이엠에프로 인한 부권의 추락과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여성작가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들 수 있다. 여성작가들에 의해 청소년 문학에서 아버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한편으로 어머니와 딸의 이자(二者) 관계가 절대화되면서 ‘오이디푸스 가족 로맨스 플롯’이 무너지고 있다. 어머니와 딸의 분리 혹은 배반은 성장의 필수적인 절차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자 관계의 회복이 서사적 목표로 제시된다. 청소년 문학 속의 소녀는 ‘여성문학’ ‘페미니즘’ 이후를 보여주는 문제적 주인공이다.

*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그런데 청소년의 성장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해 지면서 모자관계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갈등과 투쟁이 될 수 있음이 징후적으로 드러난다. 전능한 어머니의 환상은 딸을 어머니의 지배 하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소녀들은 여성작가들에 의해 비로서 백치같은 순수나 가엾은 희생자가 아니라, 성욕을 가진 몸 혹은 임신과 출산의 기능을 갖춘 성숙한 육체로 귀환한다. 이는 소녀가 성이 분화하기 이전의 천진한 유아가 아니라 욕망하고 생식하는 몸의 주체로 재인식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현실 속의 소녀들이 스스로의 육체를 유희와 전복의 장으로 삼는데 반해 성인 작가들에게 십대의 성은 불안 혹은 공포로 경험되기 때문에 소녀의 섹슈얼리티는 본격적으로 말해지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성녀와 악녀라는 편협하면서도 억압적인 이분법을 가로지르며 소녀 루저들이 등장해 새로운 모험담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간 동화-청소년 문학에서 소녀-여성 들은 도처에 편재하는 로망스 플롯에 묶여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변화는 획기적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도전의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경계를 넘어 횡단하는 이들 모두에게 누구나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기계발 담론과 손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핵심어 : 소녀, 모녀 플롯, 루저, 청소년 문학, 페미니즘, 반오이디푸스 서사, 자기계발 담론

1. 서론

최근 청소년 문학에서 소녀는 1) 희생자나 순수의 상징으로 타자화되지 않고 가부장적 지배 문화를 횡단하고 반란하는 능동적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소녀들의 이야기가 청소년 문학의 공식과 문법을 해체하고 균열을 내는 전복적인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소녀 재현의 상투적 관습의 해체는 최근 문화 영역에서 폭넓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정이현 소설의 발칙한 소녀들은 여성성을 연기(演技)함으로써 젠더의 수행성을 폭로한다²⁾. 다른 한편으로 2008년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주도한 촛불소녀들은 광장, 즉 한국 민주운동의 집회 풍경을 바꿔 놓으며 새로운 정치 주체로 떠올랐는데,³⁾ 광장공포증은 대표적인 여성의 질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격세지감이라 할만하다. 소녀는 더이상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존재, 세대를 거쳐 유산처럼 물려받는 가사노동에의 임무, 어머니와의 태생적인 애증관계,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환상의 성장과 함께 그것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사춘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현실적인 불안

-
- 1) 오영숙에 의하면 그간 소녀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나 위험, 즉 무언가를 대신 말하기 위한 공간 표지물 혹은 기표로 등장해왔다. 소녀는 이상적 여성의 규범도 되지 만, 기실 여성의 무력한 위치를 암시하면서 의미심장한 미학적 표상이 되어 왔다. 오영숙에 의하면 70년대 청년문화 세대의 소설에서 성인 여성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은 소녀로 캐릭터화되어 있다. 『별들의 고향』(최인호) 등 일련의 소설들은 순수한 인물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희생당하는 과정을 비극적으로 그려내는 과정에서 여성을 무력한 희생자로 표상한다. 여기서 소녀는 최인호 등 청년문화운동 세대들이 독재정치나 파행적으로 진행된 산업화 속에서 느낀 무력감을 투사한 대상이자 희생자에 대한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으로 자기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수단이다. 오영숙, 『아빠와 소녀 : 70년대 한국영화의 표상 연구』, 『영화연구』 42호, 2010, 200쪽.
 - 2) 김은하, 『여성 주체의 발견과 저항공간으로서의 몸』, 『여성의 몸』, 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창비, 2005, 235~239쪽.
 - 3) 김영옥,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아시아여성연구』 제48권 2호, 2009, 9쪽.

감 등에 짓눌린 존재”⁴⁾로 설명되지 않는다.⁵⁾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최근 청소년 문학 속의 소녀의 형상이다. 입시지옥에 짓눌린 청소년들에게 과연 독서할 권리가 허용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신문사나 출판사 주최로 청소년문학상을 신설함으로써 이미 제도화되고 있는 바 청소년 문학 출판 붐은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듯하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청소년을 더 이상 강압적으로 훈육하거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계몽 언어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깔여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들이 아이들에 대해 이미 알거나 믿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온통 도전받는 시기라는 점은 청소년 문학의 정체성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⁶⁾ 청소년들은 더 이상 무구하고 귀여운 육체가 아니라 소년의 몽정과 소녀의 초경처럼 낯설고 이물스러운 다른 얼굴을 드러내며 성인들을 고뇌에 빠뜨린다. 특히 아기가 오이디푸스화 과정에서 짜증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항적인 힘을 드러냈던 것보다 더한 공격성, 거부, 파괴욕을 표출한다. 이는 청소년기가 어른의 권위 혹은 아버지의 통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임을 암시한다. 특히 가족 로맨스가 깨어진 후 청소년의 시선에 포착된 아버지들의 초상은 무력함을 넘어 비루하기만하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오이디푸스화 돼서 남근의 경제학에 진입한 주체가 또 다른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한 시기이며, 청소년문학은 청소년이 다시 한번 오

4) 김예란, 『소녀성과 육체의 미디어화』, 『모바일 소녀@ 디지털 아시아』, 이동후·김예란의 지음, 한울 아카데미, 2006, 64쪽.

5) 그간 성인도 아이도 아닌, 여성도 남성도 아닌 채 문지방에 선 불안의 기표였던 소녀들은 『리나』(강영숙, 2006, 랜덤하우스), 『바리테기』(황석영, 2007, 창비) 등 근작에서 아방가르드한 상징성을 부여받으면서 탈경제적 주체로 등장 중이다.

6) 정혜경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담론과 청소년 문학의 형성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급변하는 매체 환경과 교육 제도 및 동시대 문화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정혜경, 『이 시대의 아이콘 ‘청소년’(을 위한)문학의 딜레마』, 『오늘의 문예비평』, 2008년 겨울호, 해냄.

이디푸스적 안정을 이루어내기 위해 비체(abjection)⁷⁾를 추방하고 이상적인 자아로 스스로를 정립하기 위한 심리적 통과제의를 치루는 문화적 장치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청소년문학은 탈권위주의적인 성인들의 보이지 않는 세심한 고려 속에서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 성공적으로 재통합되기 위해 다시 치루는 오이디푸스 과정을 서사화한다.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라는 이름의 기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⁸⁾ 일제강점기에 ‘청소년’은 부국강병을 위해 훈육되고 규율되어야 할 존재로서 ‘소년’과 ‘청년’을 총칭하는 말로 등장하게 된다.⁹⁾ 조은숙에 따르면, ‘소년’에 부여된 특별한 함의는, 계몽의 열기가 고조되었던 1900년대부터 1920년경을 전후로 한 시기에 형성된다. ‘소년’은 사회진화론적 국가·문명 담론이 전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우승열패, 적자생존의 논리가 보편 원리로 설명되던 시기에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수용·창조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을 지닌 존재로서 급격히 부상된다. 미성년들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위기·전환의 무대에서 독립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대

7) 크리스테바의 『공포의 권력』의 『엡젝션에 관한 에세이』에 의하면, 엡젝션이란 정체성·체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경계·위치·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탈중심화된 주체, 이행대상 개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엡젝트는 인간생활과 문화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배제하는 것이다. 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엮음, 황종연 역, 『현대문학·문화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57쪽.

8) 청소년기는 세속적인 것과 숭고한 것, 질서와 오염의 이분법 속에서 구축된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이다. 그러나 부권이 무너졌다고 초자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절대적인 것이 실패하고, 교회와 가정, 국가 사이의 합의점이 실패함으로써 초자아의 명령이 더 빠르게 분산”되었는데, 이로 인해 초자아는 오히려 더 분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초자아는 청소년의 내부의 아버지의 존재를 통해 집중되게 된다. 크리스테바는 청소년기를 “열린 심리 구조”로, 심리적 재조직화의 시기로 정의했다. 오이디푸스화 돼서 남근의 경제학에 진입한 주체는 또 다른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는데, 이 위기가 바로 청소년기이다. 캐런 코우츠 저, 이미선 역, 『비체화와 청소년용 소설』, 『아동문학 작품 읽기』, 작은 씨앗, 2008, 216~252쪽.

9) 김현철, 『청소년은 누구인가?』, 『이팔청춘 꽃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인물과 사상사, 2009, 18쪽.

서사극을 시연할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새롭게 조명된다.¹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이름 속에 소녀가 들어설 주체의 자리는 없다. 소녀는 민족국가를 이끌어 갈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와 여성을 결여된 존재이자 가부장의 보호와 지배 하에 놓여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근대의 정치구조에서 여성은 소녀로 규정된다.¹¹⁾ 이는 여성이 아버지-남성의 보호와 통제가 필요한 수동적 위치에 놓여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소녀-여성은 소년이 상징계에 재진입하기 위해 추방해야 할 위협이나 무력한 희생자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소녀는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남성적인 것으로 젠더화하고 남성이 근대 국가의 충실한 신민이 되게 하는 타자로 존재한다.¹²⁾

이렇듯 ‘청소년’이라는 호명 속에 깃든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살펴보면, 소녀들의 이야기가 청소년 문학의 공식과 문법을 해체하고 균열을 내는 전복적인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 문학 속 소녀들은 이러한 변이의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도록 작용한 힘들은 무엇이며, 청소년 문학은 어떻게 스스로를 동화나 기존의 성인문학과 다르게 정체화하고 있는가? 이후 살펴보겠지만 청소년

10) 조은숙, 「근대계몽담론과 ‘소년’의 표상」, 『어문논집』제 6집, 민족어문학회, 2002, 226~228쪽.

11) 권명아, 「수난사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진 민족 이야기」, 『문학 속의 파시즘』, 김철, 신행기 외 지음, 삼인, 2001, 236쪽.

12) 언뜻 청소년은 무성적(無性的)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청소년만 있고 청소년이란 단어가 없듯이 모두가 학교와 가정에서 비슷한 과정을 밟아 성장한 듯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국가와 발전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국민으로만 묶어 설명할 수 없다.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은 각각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국가재건의 시기를 거치면서 남자 청소년은 민족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가는 주체로, 여자 청소년은 신사임당으로 대표되는 현모양처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길러져 왔다.

년 문학에서 소녀들의 성장은 더 이상 아버지의 법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본래적 자기를 상실하고 그 댓가로 여성성을 획득하는 희생적 통과제의의 시간이 아니다. 청소년 문학에서는 오이디푸스 가족 로맨스 플롯이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물질적 계기로 아이엠에 프로 인한 부권의 추락과 청소년 문학의 창작 주체의 절대다수가 여성작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 즉 여성작가들은 청소년 소설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흥미롭다고 여기며 읽는 청소년 소설의 거의 대다수는 여성들이 쓴 것이다. 청소년 소설은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여성작가들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동화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영웅적이라기보다는 도처에 편재하는 로망스 플롯에 묶인 채, 순응과 위반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 즉 성녀와 마녀로 이분화된 편협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적어도 여성작가들의 청소년 문학에서 이러한 가부장적 스토리텔링의 방식은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다. 그러나 소녀-독자와 성인여성-작가가 여성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화해롭게 정서적 문화동맹을 맺고 있을지 미지수이다.

2. 어머니-딸 플롯과 추방당한 아버지

이천년대 청소년 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녀들의 성장담 속에서 아버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한편으로 어머니와 딸의 이자(二者) 관계가 절대화되면서 ‘오이디푸스 가족 로맨스 플롯’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취를 잡자』(임태희, 2007, 푸른책들) 『하이킹 걸즈』(김혜정, 2008, 비룡소)에서는 미혼모 가족이, 『우아한 거짓말』(김려령, 창비, 2009)에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모녀만 남은 홀부모 가정이 등장한다. 『우리들의 스

캔들』(이현, 2007, 창비) 『하이킹 걸즈』 『닌자걸즈』(김혜정, 2009, 비룡소) 『유진과 유진』(이금이, 2004, 푸른책들) 『직녀의 일기장』(전아리, 2008, 현문미디어) 등은 이른바 ‘정상가족’이 배경이지만 아버지들은 그림자나 유령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소녀들의 성장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작품들은 아버지의 왕국이 빠르게 몰락해 가고 있거나 혹은 오래 전에 들었던 소문처럼 흔적조차 희미한 것임을 암시한다. 아버지들의 권위가 형편없이 추락한 현장은 쉽게 목격된다. 이를 테면, 『하이킹 걸즈』에서 외할머니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상처 때문에 늘 말썽을 일으키는 손녀와 밥상을 마주한 채 “아빠는 오이지야. 없어도 괜찮은 오이지만 말이야”¹³⁾라고 위로한다. 적어도 이 작품 속에서 아버지들은 부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결핍감을 자아내는 대상 혹은 정상 가족을 완성해 줄 전능한 존재로 규정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부재를 상처로 인지하는 것이 진부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실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아버지들은 식민 현실, 이념 전쟁과 분단, 근대화 프로젝트 속에서 집 밖을 떠도는 존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은 모성의 장소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은 부재하기 때문에 신화처럼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자녀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아버지들의 초월적 권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암시한다. 아버지들의 몰락은 이들이 저항과 반역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혐오를 유발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혐오는 증오보다는 강도가 약한 감정으로서 아버지들이 주체를 위협할 정도의 권위를

13) 다음은 주인공인 은성이 보라에게 자신의 가족사를 고백하는 장면의 한 대목이다. “할머니 왜 난 아빠가 없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밥상 위에 있는 장조림과 오이지를 가리키면서 그러더라. ‘은성아, 장조림이랑 오이지가 둘 다 있을 필요는 없단다. 너는 오이지는 있어도 안 먹잖아. 아빠는 오이지야. 없어도 괜찮은 오이지만 말이야.’ 할머니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더라. 나는 오이지는 있어도 안 먹으니까, 장조림만 있어도 밥을 아주 맛있게 잘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하이킹 걸즈』, 216쪽.)

지니지 못함을 암시한다. 『키싱 마이 라이프』(이옥수, 2008, 비룡소)의 여고생 하연은 알콜중독자인 아버지가 싫어 기출을 하고 결국 미혼모가 되지만 아버지를 증오쉬인 투쟁이 아니라 불쾌한 연민의 대상으로 인지한다. 가계를 유전하는 알콜중독으로 인해 늘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는 폭군이기보다 그저 훼손된 인간에 불과하다.¹⁴⁾ 또한 『우아한 거짓말』에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늘 걱정을 안겨주던 무명의 예술가였던 아버지는 벽찬 감동이나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회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죽어서도 신화가 되지 못한 아버지야말로 부권 소멸의 징후라 할 것이다. 죽음은 적대와 갈등을 무너뜨리고 지난 날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듯 증오도 사랑의 대상도 되지 못한 아버지들을 대신해 소녀들의 성장을 인도하는 것은 이모, 언니를 비롯한 어머니, 즉 모성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소녀들이 정상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애정의 대상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전환해 ‘아버지의 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문학에서 소녀들의 성장을 위협하는 것은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부재다. 이와 함께 서브 플롯에 불과했던 어머니-딸 관계가 서사의 중심으로 이동한다. 에드리안느 리치가 말한 바처럼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침묵되어 왔다. 이들의 사랑이 기록되지 못한 것은 그것이 남성들을 부차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모녀의 이야기들은 깊은 상호의존성인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소외

14) 아버지는 불행의 근원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무능했고, 가족의 든든한 보호자 노릇을 하지 못한다. 『시계탑』(전아리), 『우아한 거짓말』(김려령) 등에서 아버지는 불쾌한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한편으로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는 무기력한 존재이자 다른 한편으로 희생자인 이들은 가장의 권위가 추락한 혹은 남성성이 거세된 아버지들의 초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아이엠에프 이후 등장한 가족의 내밀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의 가족이 마치 액체처럼 유동하면서 변화 중임을 증명한다.

로 점철되어 있다. 죄의식, 사랑, 인정, 증오, 분노 등의 감정으로 강렬하면서 깊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¹⁵⁾ 어머니는 영원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의식 강한 여성주의자들에게 그러하듯이, 동일시를 거부하고 도망치고 싶은, 즉 진부하고 폐쇄적인 것의 상징이다. 어머니와 딸 관계는 여전히 신비와 무지 속에 파묻힌 미지의 대륙으로 남아있다. 이렇듯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딸 플롯은 애증이 범벅된 공생관계에 가깝다. 아버지들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 속에 깊이 개입해 있었기 때문이다.¹⁶⁾

청소년 문학에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오이디푸스 가족 서사 속의 모녀 플롯과 그 양상을 달리한다.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에 주린 채 어머니를 욕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딸의 분리 혹은 배반은 성장의 필수적인 절차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자 관계의 회복이 서사적 목표로 제시된다. 『하이킹 걸즈』의 불량소녀 은성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와 갈등하지만 긴 여행의 끝에는 어머니와의 화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외할머니에 의해 양육되며, 밖에서는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는 등 이중으로 상처를 입는다. 미혼모인 어머니는 은성의 존재를 부인하고, 외할머니가 은

15) 어머니와 딸의 애증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에드리아느 리치 저, 김인성 역,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16) 김은하, 『애증 속의 공생, 우울증적 모녀관계-박완서의 『나목』론』, 『여성과 사회』15호, 창비, 2004. 세상의 모든 딸들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아버지의 딸이 될 때 '정상적인' 여성성을 획득할 수 있다. 딸은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나온 순간 어머니에게서 분리되어 아버지의 법에 종속된다. 아버지/남성의 욕망 속에서 정신과 육체를 조율함으로써 딸은 '여성'이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머니와의 유대의 기억을 망각하거나 견잡을 수 없는 분노로 어머니와 불화한다. 정신분석학은 딸의 어머니 거부를 어머니의 거세를 발견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자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의 절차로 보았다. 그러나 이리거레이에 따르면 딸의 원초적인 상처는 거세가 아닌 태줄이 절단된 것이다.

성을 양육해 왔기 때문에 모녀의 애착관계는 뚜렷이 형성되지 못했다. 가부장제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짓눌린 채 모녀는 서로를 향한 적의 혹은 원망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불량소녀 은성은 소년원에 가는 대신 택한 실크로드 도보여행은 오이디푸스 서사와 달리 부권을 추방하고 어머니에게 귀환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극복된다. 여행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은성은 우연히 남자들과 얽혀 패싸움을 벌이는데, 여기에는 남성-부권 사회를 거스르고자 하는 욕망이 은닉되어 있다. 소녀가 성인 남자, 그것도 여러 명의 남자들과 싸워 이긴다는 설정은 몹시도 작위적이지만 소녀가 넘어서야 했던 것은 가부장제의 법이기에 이 장면은 결코 군더더기가 아니다.

어머니와 딸은 가부장제의 법 속의 피해자 혹은 생존자로서 대립을 허물고 동질성을 획득한다. 『유진과 유진』에서 ‘작은 유진’은 유년기에 겪은 성폭력의 기억이 재귀하자 어머니와 극심한 갈등을 벌인다. 그녀의 저항은 모범생의 규범에서 한없이 이탈함으로써 어머니를 상처입히는 것이다. 소녀는 담배를 피우고 춤을 추며 형편없이 추락한 성적표를 내보임으로써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무책임 혹은 배반에 항의한다. 어머니는 성추행을 당한 채 상처입은 자신을 보듬어주는 커닝 그녀를 훼손당한 몸으로 규정함으로써 더 큰 트라우마를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은 유진’의 어머니가 딸을 외면했던 것은 시댁과의 관계에서 그녀 자신이 무력했기 때문이다. 한미한 집안출신의 며느리로 늘 주눅이 든 어머니는 시댁의 뜻대로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음으로써 유진이 상처를 회복할 기회를 박탈하며 유진을 더럽혀진 몸으로 규정하는 시댁의 시선과도 맞서 싸워주지 못한다. 어머니에게 ‘작은 유진’은 스스로를 결핍과 수치로 규정하고 있는 그녀 자신에 대한 인식의 연장이다. 소설은 어머니와 딸이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위계관계가 아닌 여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쥐를 잡자』 역시 가부

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딸은 폭력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임을 암시한다. 주홍의 어머니가 십대인 딸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이를 외면했던 것은 스무살에 미혼모가 되었던 자신의 경험 때문이다. 결국 이해받지 못한 주홍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태아에 대한 죄의식 속에서 자살을 선택한다. 이는 딸의 죽음이 어머니로부터 소외된 결과임을 보여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의 배반은 딸이 자신의 자랑스럽지 못한 혹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머니는 딸을 자신과 분리불가능한 동일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들은 소녀의 몸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어머니와 딸의 갈등을 초점화함으로써 성폭력, 십대 임신이라는 사회문제를 가족의 문제 특히 어머니의 자질 문제로 축소해 버린다. 특히 『유진과 유진』의 경우,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큰 유진’이는 현명한 어머니로 인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작은 유진’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그려짐으로써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의 이분법이 구축된다. 이는 청소년 문학의 창작 주체인 여성-어머니들이 전능한 어머니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암시한다. 전능함의 환상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의식에서 기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를 테면, 어머니의 죄책감은 소녀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모티프를 통해 드러난다. 『쥐를 잡자』에서 여고생 주홍이는 낙태수술을 한 후 태아 살해에 따른 죄책감으로 자살한다. 그녀가 남긴 유서는 미혼모인 어머니가 사회적 질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낳은데 따른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서는 기실 어머니에 대한 추궁 혹은 심문의 성격을 띠다고도 볼 수 있다. 주홍은 자신의 임신 사실이 어머니에게 외면당하자 낙태를 하고, 결국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으며 그 일로 어머니는 평생동안 죄의식에 짓눌려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딸의 시신을 발견하는 장면은, 어머니 자신이 스스로를 영원히 벌하고자 하는 욕망, 즉 죄책감을 암시한다.

이렇듯 전능한 어머니의 환상은 자칫 모든 문제를 이상적 어머니 대 무능한 어머니의 구도로 치환함으로써 공적의제를 개인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더욱이 자녀의 성공과 실패, 좌절과 극복을 모두 어머니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모성 이데올로기처럼 어머니 자신에 대한 또 다른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 문학에서 자녀들을 삼키고 질식시키는 ‘팔루스적 어머니’¹⁷⁾의 부정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닌자걸스』에서 고은비는 배우가 되고 싶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욕망이나 재능과 무관하게 의대 진학을 강요한다. 딸은 거짓말로 간신히 감시망을 빠져 나가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한다. 자식의 인생을 제멋대로 장악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공포스러운 면모는 자녀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부각된다. 『스피링벅』(배유안, 2007, 창비)에서 모범생이며 어머니의 착한 아들이었던 형은, 질식할 듯한 어머니의 세계를 빠져 나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 어머니의 강압 속에서 철저히 수동적 위치에 놓였던 형은 생명권을 스스로 몰수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닌자걸스』에서 은비의 대학생 오빠

17) 팔루스적 어머니란, 아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 즉 어머니를 거세되거나 결핍된 것으로 인지하기 이전의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일컫는다. 이렇듯 매개되지 않은 전오이디푸스적인 어머니-아이의 관계는 각자가 상대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만족하지만, 뭔가 심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전부가 되어 성장과 독립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러한 완전히 강력한 어머니상은 정신 이상에서 괴로움을 주는 이미지의 근간이 될 수 있다. 팔루스적 어머니는 어머니와 자녀의 이차관계의 위험성에 대한 암시, 즉 아버지의 개입이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여기서 어머니는 비록 아버지의 개입이 필요한 어머니의 부정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재현된 것은 아니나, 모성성의 위험한 측면을 암시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역시 어머니의 강요로 의대에 입학하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남몰래 입대함으로써 어머니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이렇듯 어머니는 목숨을 지불하거나 모종의 자기희생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하고 무거운 장애물, 즉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제도, 자본주의, 계급, 가족, 부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현실에 대한 성찰적 탐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기실 이들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 완전한 헌신, 숨막힐 듯한 사랑, 병적인 걱정 등은 근대가정의 전업주부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혹은 어머니 노릇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발생한 병리적 모습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만다.

청소년의 성장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해 지면서 모자관계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될 수 있다. 부권의 약화와 함께 모권의 강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전능한 어머니의 환상은 딸을 어머니의 지배 하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유진과 유진』에서 큰 유진은 이제 막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에 의해 좌절된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성폭력 피해자인 유진과 자신의 아들이 이성친구가 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연락을 끊은 이유를 알고 실망한 딸을 대신해 큰 유진의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항의와 모욕의 말을 퍼부음으로써 딸을 위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딸은 가부장적 어머니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각성된 페미니스트 어머니에 의해 역설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인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자신의 몸의 실존사회적 위치를 인지함으로써 스스로를 계몽할 계기를 박탈당한다. 이는 가부장권을 대리 수행하는 억압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어머니라 할지라도 딸의 편이 되어주는 좋은 어머니가 딸의 성장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3. 성숙한 육체의 귀환, 판도라 상자 속의 소녀

청소년기란 미성년의 주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성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청소년은 ‘탈성화’(脫性化)된 이름이다. 근대 이후의 가정 교육의 핵심은 소년기의 성욕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었다. 성과학은, 청소년의 성을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위험이자, 인종적 열등함의 원천으로 규정지음으로써 고백과 자기반성을 통해 교정, 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듯 성욕을 박탈하는 과정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았다. 소년은 성욕을 추방하는 혹은 금기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성욕으로 가득한 육체로 규정지어졌다. 그러나 소녀는 성욕과 같은 불길하고 음험한 얼룩조차 찾을 수 없는, 백지와도 같이 무구한 존재로 표상되어 왔다. 소녀는 여성을 정숙하고 현명한 아내로서 길들이기 위한 가부장적 기획 속에서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추방당한 결과 순수 혹은 순결로 표상된다. 성적 주체성의 박탈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위치짓는, 즉 남성의 보조적 존재, 이등 시민으로 규정하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소녀들은 무성적 규범들을 찢고 스스로를 섹스 피플로 가시화한다. 소녀들의 성 재현의 확산은 외모주의 육체 산업이 소녀의 통과제의를 섹슈얼한 육체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만들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마치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잃는 고통을 지불하면서까지 성인 여성의 육체를 얻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 소녀들의 성장은 지독한 허기와 성형수술이라는 위험한 시험대를 통과하는 인고의 의례가 되었다. 그렇다고 육체가 소녀들의 무기력한 지위, 억압받는 현실의 증거인 것은 아니다.¹⁹⁾

18) 국가재건기 여학생 대상의 성과 관련된 언설에 담긴 가부장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나임윤경, 『10대 여학생, 현모양처 만들기 프로젝트』, 『이팔청춘꽃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2010, 인물과사상사, 211~262쪽.

19) 예를 들어, 미디어 속의 걸그룹들은 무구한 아름다움의 표상이 되기보다 섹슈얼한

최근 청소년 소설에서 소녀들은 연애하는 여성 혹은 성욕을 가진 몸으로 등장하고 있다. 『취를 잡자』 『유진과 유진』 『마이 키싱 라이프』 『우리들의 스캔들』 등 소녀들의 성을 다룬 소설은 마치 유행인 양 증가하고 있는데 소녀들의 성은 위험 혹은 금기, 즉 강간이나 성추행 등 폭력과 희생의 이미지에 묶여있거나, 순수와 오염이라는 가부장적 재현의 관습에 붙들려 있지 않다. 순결 이데올로기, 즉 성에 대한 극도의 신비주의와 공포담론이 모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다. 소녀는 핏기없는 하얀 얼굴의 순수가 아니라 물질성과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소녀들이 성욕을 가진 몸, 임신과 출산의 기능을 갖춘 성숙한 육체로 귀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이는 소녀가 성이 분화하기 이전의 천진한 유아가 아니라 욕망하고 생식하는 몸의 주체로 재인식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청소년 문학에서 소녀들의 성은 여전히 연애하고 쾌락을 전유하는 몸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의 위협 속에서 직면한 ‘곤경’으로 포착되고 있다. 소녀의 연애보다는 성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 즉 임신과 출산 등 매우 현실적인 성 의제에 초점을 두되, 스토리가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들은 놀라우리만치 빠른 속도로 변이 중인 십대의 성에 대해 무방비하거나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서술자 즉, 어머니-성인 여성의 맨얼굴을 보여주고 있어 문제적이다. 『취를 잡자』는 여러 모로 미숙한 작품임에 분명하나, 소녀들의 빠른 성장 속도 혹은 개방된 십대 성문화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갖추지 못한 채 공포에 짓눌린 기성 세대들의 모습을 징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고생인 주홍

육체를 적극적인 응시 대상으로 전락화한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무구한 소녀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도발적인 성적 퍼포먼스를 통해 소녀에 대한 기존의 얌 혹은 표상을 흔들어 놓고 있다. 자신들의 몸을 상품화하지만 타자의 욕망에 대한 주도권을 쥔 적극적인 유혹자라는 점에서 이들을 단순히 소녀-여성 육체의 수동성을 확정해 주는 증거 혹은 주체가 되지 못하는 성적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의 담임교사는 소녀의 임신을 눈치 채고도 외면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다. 주홍이, 즉 소녀의 육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담임의 태도는 회피에 가까운데, 이는 무단 결석한 주홍의 사물함에 쥐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도 사물함의 문을 열어보지 못하는 것에서 암시된다. 마찬가지로 주홍의 어머니 역시 냉장고에 쥐가 살고 있다는 의혹에 시달리지만 냉장고의 문을 열지 못한다. 급기야 코드마저 뽑힌 냉장고에서는 더러운 물이 흐르고 악취가 뿜어져 나와 주홍의 집은 마치 고딕소설의 폐허인 양 훼손된다. 여기서 사물함, 냉장고 등은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비밀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비밀 상자, 즉 어두운 비밀이 가득한 소녀들의 성적 육체를, 쥐는 소녀들의 성적 육체에 대한 기성세대의 공포를 상징한다.

『키싱 마이 라이프』(이옥수)는 『쥐를 잡자』에 비해 십대들의 성을 다소 정직하게 대면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듯 보인다. 특히, 『쥐를 잡자』가 주홍이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감추어 버리고 임신·출산이라는 사건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십대의 성적 권리에 대한 문제를 괄호쳐 버린데 반해, 주인공 하연의 임신은 남자친구와의 연애와 그로 인해 발견된 성욕에서 비롯된다. 꿈에서 깬 하연이 남자친구 채강과의 키스가 육체에 남긴 감각적 쾌락을 상기하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욕망하는 십대 소녀의 육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파격적이다. 그러나 소설은 하연과 채강이 다소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난 후 임신을 하고, 그 결과 곤경에 처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기실 단 한번의 성관계가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모범생이자 우등생이었던 하연은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결국 낙태 시기를 넘긴다. 소연의 이야기는 그녀가 가출한 몸으로 모텔과 미혼모 시설을 전전하며 비명 속에 출산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작품은 십대의 성을 의미심장한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다. 십대들의 성욕이라는 도발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십대와 기성 세대 혹은 학교 간의 충돌이 발생할 계기가 차단당하기 때문이다. 하연이가 아버지의 알콜중독으로 기출한 뒤부터 이야기의 초점은 하연이가 남자친구 채강을 비롯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모텔 생활에 적응하며 무사히 아이를 낳는 과정에 맞춰진다. 즉, 하연의 임신은 학교와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소녀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학교 제도, 부모, 소녀 당사자 간의 갈등이 초점화되지 못한다. 대신 임신-출산은 십대들의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는 계기, 모종의 이벤트인 양 그려져, 작중 인물도 언급하듯이 십대임신을 이색적인 팬시상품처럼 그려낸 영화 『제니 주노』(김호준, 2005)나 현실의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 인터넷 로맨스 소설을 떠올리게 만든다. 십대 소녀의 임신은 소녀를 성적 주체로 보느냐 혹은 어른의 통제나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대상으로 보느냐 등 시선의 차이에 따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소설은 십대와 기성 세대 간의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보다 십대에게는 성숙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현실의 갈등을 봉합한다. 모범생인 하연이 임신한 채 자퇴생이 되어버린 것은 문제투성이의 부모 때문이다. 알콜중독자인 하연의 아버지와 그에게 얽매인 어머니는 소녀를 돌볼 만큼 성숙하지도 여유도 없다. 아버지의 주정을 피해 집을 나온 하연은 남자친구에게 위로받고자 하고, 이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진다. 하연의 임신은 십대의 성이 성숙한 부모들의 보호와 통제 속에 관리되지 못한 채 발생한 일탈임을 암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페미니스트 작가들에게 소녀들의 섹슈얼리티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무력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장애물인 탓에 주체가 되기 위해 금기에 묶여 있어야 할 대상이 된다. 『우리들의 스캔들』은 우등생 보라가 주변 여성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별 주체성을 획득해가

는 과정을 사려 깊게 다룬다. 특히 학교 권력이 소녀들의 연애를 여성성의 상실 혹은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학교 권력은 무성적이기 보다 가부장적 것으로 조명된다. 이는 주인공 보라의 절친이었던 장은하가 다른 학교의 남학생 짱과 어울린다는 이유만으로 추문에 휩싸이고 결국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이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받는 것에서 암시된다. 장은하는 여학생을 순수와 타락으로 이분화하는, 즉 여학생의 연애를 매춘화하는 가부장적인 학교 제도의 희생자로 그려진다. 다른 한편으로 보라의 이모이자 보라네 학교의 교생인 진숙경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폭력성 혹은 가부장성을 폭로한다. 진숙경은 학교라는 가부장적 규범의 감시체제에서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창부로 낙인 찍힌 채 교실 내 진입 금지, 즉 추방을 명령받는다.

소설은 진숙경이 당차게 학교 측과 싸워가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학교 권력의 가부장성을 비판하고 소녀가 성모가 아니라 성찰적 여성 주체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보라가 성찰적 여성 혹은 페미니스트 주체가 되기 위해 연애 혹은 욕망은 금기에 묶여 있거나 유보된다. 은하의 무기정학과 이모의 추방 사건을 목도하면서 이제 막 시작한 보라의 연애 역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라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박승범이 평소의 세련된 이미지와 달리, 반 아이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이모 진숙경의 사생활을 실어 날라 그녀의 성을 매춘화한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박승범의 이중성은 연애가 낭만적인 영역이 아니라 치열한 젠더 갈등의 장임을 암시한다. 여기에는 가부장제의 허위 혹은 남성들의 이중성에 대한 성인 여성들의 염증어린 경험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은 나이든 여성이 어린 여성에게 주는 충고 혹은 조언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소녀의 연애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불안을 형성함으로써 소녀기를 무성적 시간으로 만든다. 보라는 충격과 혼

돈 속에서 승범을 추방해 버리고, 로맨스 없는 모범생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

이 작품에서 학교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성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상호 작동하는지가 치밀하게 그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권위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의 남성성과 가부장성이 폭로되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이 이슈화되면서 섹슈얼리티 문제는 후면으로 감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녀들의 연애 혹은 십대의 성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중단된다. 애초 소설은 은하와 이모의 사생활이 스캔들화되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후 스캔들은 후면으로 물러나고 담임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과 부적절한 교육방법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신경전이 전면화된다. 아이들이 올린 담임 교사의 학생 체벌 동영상이 논란거리가 되어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됨으로써 성이라는 의제가 묻혀버리고 만다. 소녀의 연애와 성은 어린 학생들이 지혜롭고 용감하게 힘을 합쳐 폭력 교사를 내쫓는 식의, 스펙터클한 학원 저항담 속에 감추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는 십대, 특히 소녀의 성이 여전히 회피하고 싶은, 즉 깔끄러운 대상임을 암시한다.

청소년 문학에서 십대들 특히 소녀들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는 여전히 침묵과 금기의 대상, 즉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두운 벽장 속의 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 딸의 시선이라기 보다 딸의 성장을 바라보는 성인 여성-어머니의 시선이기도 하다. 송경아에 의하면, 최근 ‘여고생 포르노그래피’라 불리는 팬픽이나 로맨스 소설의 등장은 “소녀들이 자신의 연애 환타지를 더 이상 사적인 것으로 숨겨 두지 않을 정도로 당당 혹은 뻔뻔해 졌다”²⁰⁾는 증거이다. 소녀들은 여성의 육체라는 봉인된 상자를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한 시선으로 전유하거나 유희와 전복의 장으로 받

20) 송경아, 『소녀들의 감수성, 시장으로 진출하다』, 『당대비평』 23호, 삼인, 2003, 328쪽.

아들이는 데 반해, 이들 소설들은 십대의 성을 불안과 혼란으로 의미화함으로써 벽장 깊이 밀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작가들은 한편으로 딸-소녀를 공감적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딸의 육체와 욕망을 부재와 침묵으로 묶어 둔다. 소녀기란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이가 어머니-딸의 동성 사회를 벗어나 이성애 사회, 즉 남근적 경제로 이동하는 시기라고 볼 때 이러한 거부증은 딸과의 충만한 유대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혼돈의 세상 속으로 딸을 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암시한다. 프로이트는 성차를 적극적/소극적이라는 대립적인 용어로 설명했는데, 여성은 섹스와 로맨스가 개입되면서 수동적인 위치를 부여받는다. 융 심리학에 따르면 소녀기는 전체성의 자아를 상실하면서 미스터리한 변이가 발생하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시기이다. 이들 작품에서 역시 소녀들은 성적 육체를 발견하는 덧에 걸린 짐승처럼 삶을 훼손당한다. 소녀들의 학업은 중단되며 이들은 아무런 준비없이 가족을 떠나게 된다. 반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로맨스와 섹스가 부재한 공간에서 소녀들은 전통적으로 남자 아이들이 점하는 적극적 위치를 차지한다.

4. 소녀 루저들과 모험 서사의 변이

게오르그 루카치에 의하면 소설은 성숙한 남성의 장르²¹⁾인데, 이러한 정의를 그대로 동화에 적용해도 무방할 듯하다. 동화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영웅적이라기보다는 도처에 편재하는 로맨스 플롯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소년은 용이나 거인을 찾아 떠나고 결국 이들과 싸워 이겨내는 반면 소녀는 높은 탑에 갇히거나 마법에 걸린 채 잠을 자며 저주를 풀어줄

21) 게오르그 루카치 저,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12쪽.

위대한 사랑을 기다린다. 오래된 이야기들은 여자들의 행동, 성취, 창조성, 승리를 노래하지 않는다. 여성적인 덕목은 인내, 복종, 기다림이다. 이러한 순응의 미덕을 지키지 않는 여성 모델은 메두사, 광인 등일 뿐이다²²⁾. 그런데 최근 청소년 문학에서 이렇듯 성녀와 악녀라는 편협하고도 억압적인 이분법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여성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소녀 루저(looser)²³⁾들이다. 기실 루저란 신자유주의 사회의 치열해진 경쟁주의 풍토가 발명해 낸 이름이다. 밝고 활기차며 어떤 일든 성취해내는 인간의 반대 편에는 별다른 의욕이나 정열, 꿈이나 목표도 없이 무기력하게 연명하거나 사회적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패배자가 있는데 이들을 루저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루저는 부지런한 인간들이 이룩한 사회적 성취에 편승하거나 혹은 성취를 가로막는 방해물, 쓰레기, 병균은 이들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루저는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무기력하게 종속된 채 사회적 판단의 권위를 확정해주는 존재로 머물지 않는다. 특히 소녀와 루저가 결합할 때 루저는 소녀들에게 강제된 여성성의 규범을 해체하는 주체가 된다. 청소년 문학은 루저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숙고자 혹은 저항자로 재발견함으로써 여성 모험담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소녀 루저들이 주도하는 이야기는 천편일률적인 로맨스 플롯을 벗어나 모험의 세계 혹은 다채로운 경험의 장으로 독자를 이끈다. 『닌자걸즈』는 루저 담론을 역으로 전유함으로써 가부장제 사회에 명랑한 반란을 시도한다. 여고생 고은비와 그녀의 친구들은 성적이나 용모 면에서 볼 때 사회의 이상적 기준에 미달하는 루저들이다. 주인공 고은비는 공부도 제법 하지만 미의 기준을 초과하는 ‘똥녀’이며, 이소울, 나지형은 용모는 평범하나 성적이 부족하고, 백혜지는 넘치게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하지만 백

22) 리타 펠스키 저,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여이연, 2010.

23) 김은하, 「공포의 시대와 루저의 문화정치학」, 『문학들』, 2010, 문학들, 274~277쪽.

치에 가까우리만큼 머리가 나쁘다. 이 네 소녀는 루저라는 공통의 기반으로 친구가 되어, 자신들에게 열등한 위치를 강요하는 사회에 특유의 명랑함과 싱싱한 활기로 반기를 든다. 특히 이들은 우등생반인 모란반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적 교육제도에 대해 저항한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식의 교육 정책이 결국 차별임을 주장하며 모란반 폐지를 목적으로 학교 옥상에서 নিজ 감객의 가면을 쓰고 학교-경찰 등 권위주의적 국가 기구와 대치한다. 이들의 옥상 점거 사건은 나름의 논리와 전략에 근거한 도전이기에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치적 퍼포먼스이다.

특히 이러한 반란 혹은 모험은 소녀들을 짓누르는 아름다움의 규범에 대한 불만과 연결되어 있다. 반란자 중 하나인 고은비에게 모란반 폐지는 가부장제와의 투쟁을 위한 절차이다. 고은비는 무대를 꿈꾸지만 아름답지 않은 탓에 번번이 오디션에 탈락한다. 그러던 중 운 좋게 연극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모란반인 탓에 공연연습 대신 방과 후 심화 학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고은비에게 모란반은 배우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은비의 배우되기는 단순히 어린시절의 소망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 부과된 미의 규범들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모란반 폐지는 가부장제와의 투쟁도 된다. 그녀의 성장을 인도하는 것은, 나이 들어 아름다움을 잃었지만 무대를 내려오는 대신 작은 무대를 선택한 여배우 이종욱이다. 뚱뚱하거나 늙은 두 여자들에게 아름다움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채워야 하는 욕망 혹은 결핍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미추의 기준에 복종하기보다 그러한 기준을 팽개쳐 버린다. 여기서 거울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만들고 심판의 권력을 소유한 가부장제를 상징한다. 고은비는 거울을 안티, 즉 신뢰할 수 없는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거울의 초월적 권력을 부인한다. 거울과 저울을 오가며 미의 규범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신체를 디자인하기 거부한다.

“거울아, 거울아, 똥똥하면 정말 탤런트가 될 수 없는 거니?”

거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너무 솔직한 거울 같으니. 난 『백설공주』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왕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왕비가 아닌 거울이다. 거울은 왜 왕비에게 솔직하게 말한 걸까? 그냥 왕비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주면 안 되는 걸까? 왕비와 거울이 서로 한두 해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둘도 없는 사이 같은데, 그러면 거울은 뻔히 왕비의 지독한 성격을 잘 알았을 텐데……. 게다가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건데, 어쩔 그렇게 홀라당 왕비를 배신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백설 공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한 거지?

결론은 한 가지다, 거울은 왕비의 안티였다. 『백설공주』가 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다.

‘거울 같은 친구를 사귀지 마라.’(『닌자 걸즈』, 25쪽)

그런데 거울의 권위에 대한 부인은 억압적인 현실을 주관적으로 극복하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 기실 소녀 닌자들의 투쟁은 모란반을 폐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녀들의 사적인 요구가 교사와 부모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식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래디컬한 도전이 되지 못한다. 제도와외의 갈등은 개인적 자유를 보장받는 것으로 해소된다. 이는 제도의 권위가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옥상을 점거한 이들을 찾아온 엄마들에게 고은비는 의대진학을 강요하지 말고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백혜지는 성적이 안 올라도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또한 나지형은 공모전에 낼 소설을 교사에서 되돌려 받는 식으로 갈등을 풀며 옥상을 내려온다. 이들의 투쟁은 애초 교육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즉 “0교시 수업이랑 수준별 수업 뭐 이런 거 다 허용”(224쪽)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소녀들의 투쟁은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축소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교육제도와외의 대결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기실 이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 혹은 교육 자율화 정책이 꿈꾸는 이상적 학생상에 가깝다.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기실 청소년들이 질식하리만큼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잉교육과 권위주의적인 학교 제도는 청소년들을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루저로 만드는 역설이다. 반면 고은비들은 학교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을 가로막는 제도와 명량한 싸움을 벌일 정도로 주체적이며, 획일화된 길이 걷기 거부하고 배우와 작가라는 알뜰한 꿈을 일구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이들의 사회에 대한 저항은 치명적인 불화의 기록 혹은 모험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교육제도의 등장 이후 모험은 외부의 장애물과 맞서는, 즉 사회와의 투쟁이 아니라, 좀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기 위한 내성적 투쟁 혹은 자기극복을 위한 극기훈련의 세속적 통과제의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소녀들의 모험을 가능케 한 것은 신자유주의 환경 속에서 성이 더 이상 불변의 변수가 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바야흐로 경쟁의 시장의 문이 여성에게 열리게 되었으며, 인생의 성패는 자기에 대한 테크놀로지의 연마, 리스크 관리를 통한 재빠르고 효율적인 자기 교정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인 것이다. 『하이킹 걸즈』에서 은성과 보라는 소년원에 가는 대신 70일 간의 실크로드 도보행을 선택함으로써 길 위의 모험을 시작하는데, 이들의 여행은 혹독한 기후, 육체적 한계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히는 어두운 상처와 대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풍파여고 ‘짱’인 은성은 미혼모인 어머니와의 갈등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소외감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며, 내성적인 소녀인 보라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와 학내 왕따 체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도벽으로 푼다. 소설은 이들 루저들이 외부의 강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선 도보 여행에서 세속적 통과제의를 치루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교정의 기회로 부여된 도보여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은성은 사사건건

자신을 감시 감독하는 미주언니나 보라와 마찰을 겪으며 대열을 이탈하고, 보라는 무리를 빠져 나와 영영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발칙한 계획을 품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소망하던대로 미주언니의 감시망을 벗어난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 혼자가 되면서 기실 세속적 성숙의 여정, 즉 교정이 시작된다.

먼저 은성은 우연히 대열에서 이탈한 뒤 낯설고 황량한 이국을 헤매이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경험한다. 그녀의 두려움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귀환해 오는 데서 드러난다. 어린시절 놀이동산의 미아보호소에서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는 엄마를 한없이 기다렸던 트라우마를 반복 체험하는 것이다. 은성은 다행스럽게 미주언니에게 발견, 구조된다. 다시 여행이 시작되고, 이번에 은성은 자신과 보라를 조롱하던 일본소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미주언니와 충돌한다. 그리고 은성은 자신의 치명적인 트라우마, 즉 외할머니를 자신이 죽게 했다는 죄책감과 마주한다. 그녀는 가출한 자기를 찾으러 나간 외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자 죄책감에 사로잡혀 왔다. 이 일이 그녀에게 치명적인 트라우마였음은 그녀가 외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로 어머니를 지목하는 데서 드러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치명적인 트라우마임을 암시한다. 은성은 미혼모인 엄마가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가출을 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엄마를 비난한다. 그러나 길 위에서 은성은 마침내 모든 것이 제 탓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이러한 은성의 자기각성이 미주언니의 혹독한 다그침이 계기가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일으켜 놓고 도망가겠다는 거야? 왜 자꾸 어린애처럼 그러니?
어리광 좀 피우지 마”

언니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높아졌다.

“어리광 아니에요. 이깟 여행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리고 제 발 애 취급 좀 하지 마세요. 나도 다 컸다고요.”

“아니 너는 아직 한참 멀었어. 지금 너는 사고 쳐 놓고, 그걸 못 견디겠 으니까 그만두겠다는 거야. 넌 한국에서도 그랬어. 네가 사고를 치면 할머니 나 엄마가 수습을 했어, 안 그래? 넌 다른 사람이 수습한다는 걸 아니까 그걸 믿고 문제를 일으켰던 거야. 하지만 세상은 네 생각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야. 이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슨 어른이 되겠다고 그래?”(『하이킬 걸즈』, 127~128쪽)

이들의 실크로드 여정은 세상의 루저인 그녀들이 자신들의 오류를 깨닫고 자기라는 장애물을 넘어뜨림으로써 성숙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과정은 이들이 자신을 아프게 한 상처를 인정하고 어루만져 화해하기 보다, 모든 것은 스스로의 미성숙과 비루함의 결과임을 자인하는 반성문쓰기와 유사하다. 미주 언니의 다그침은 이 여행 프로그램이 권위주의 시대의 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극기 훈련 캠프와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어른되기는 책임감을 깨닫고,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는 자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소녀들은 모험을 통해 성찰적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대한 압력으로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사회에 편입될 준비를 마친다. 이는 이들 불량 소녀들의 여행이 억압적인 사회와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이상적 공동체를 탐색하는 역동적인 횡단 혹은 명량의 위반이 아니라 스스로가 루저임을 아프게 깨닫는 세속적 각성의 시간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의 여정은 겉보기에 무척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불량 소녀들은 미주언니의 감시를 벗어나지만 결국 스스로 되돌아가고, 중도이탈로 인해 소년원에 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원해서 도보여행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포스트 도보여행’은 최근 문화계를 주

도하는 이름인 ‘자기계발문화’ 혹은 ‘자기계발하는 주체’ 담론이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규율권력이 청소년 문학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90년대 이후 아침형 인간, 시테크 등 자기계발서 출간 붐이 일었는데, 이는 출판 산업 영역 안에서 일어난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문화계 전체를 주도하는 사회적 흐름의 예고였다. 자기계발담론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권력이 세련되고 부드럽게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독재 시대와 같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동원해 개인을 억누르기보다 인습적인 권위, 억압적인 규율에 맞서 자유롭고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축복하고 예찬함으로써 자유로운 삶을 향한 의지와 자기계발의 의지를 결합시키며 탄생한, 즉 새로운 권력의 작동 메카니즘이다.²⁴⁾ 노처녀이지만 사막을 횡단하는 미주언니가 보여주듯이 소녀-여성은 가부장제의 성별구조에 종속되기보다 이를 횡단하고 뒤집는 씩씩한 이름으로서 자기계발 문화와 손잡고 있다.

5. 맺음말

책 자이프스는 『동화의 탄생』에서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 부르디외의 남성지배,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 등의 사회비판 이론들을 차용해 서구 부르주아가 주도한 문명화 과정에서 문학, 특히 동화가 문명화의 미덕을 설득하는 이데올로기 장치의 역할을 했음을 밝혀낸다. 문학을 통해 지배층은 정직함, 근면함, 책임감 등을 피훈육자에게 내면화시키고,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²⁵⁾. 독

24)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17~34쪽.

25) 책 자이프스 저, 김정아 역, 『동화의 정체-문명화의 도구인가 전복의 상상인가』, 문학동네, 2008, 418쪽.

자들을 대상으로 문명화 과정의 모범적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 즉 어린이와 청소년이 저마다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다. 이는 아동 문학이 모더니티의 얼룩, 즉 소외와 차별, 근원적 공허와 무의미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유도하는 성인 소설과 달리 미적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동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셸 페로는 “이런 사소한 것들(동화)은 단순히 사소한 것들이 아니다. 동화에는 유익한 교훈이 담겨 있다. 동화가 가벼운 내러티브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더 기분 좋게 스며들고, 교훈과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함으로써 동화의 실질적 가치를 도덕의 이로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독서계를 강타하고 있는 청소년문학은 비록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화의 기능적 효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듯 보인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 독자의 열광적 지지를 끌어낸 『완득이』(김려령, 창비, 2008)는 빈민가를 소설의 무대로 삼아 혼혈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우리 시대가 대면을 꺼려 할 비체들을 온통 불러내지만, 사회적 차별과 소외의 어두운 그림자를 일시에 몰아낼 선한 세계에 대한 낙관적 신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환멸의 체험 끝에 얻어진 성숙한 각성이 아니라 순진성에 불과하다. 특히 “똥주”는 교사라는 점잖은 신분에 걸맞지 않게 욕설을 내뱉고 기초수급자인 완득이의 식량을 강탈해 먹지만, 더럽고 누추한 빈민가를 아름답게 지켜주는 변장한 하나님이라 할 만하다. 『완득이』의 위험성은 도완득으로 표상되는 소외계층, 즉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 인물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슬픔의 에너지를 무력화하고 이들을 동정과 공감의 대상으로 수동화한다는 것이다. 도완득의 주먹질이 권투라는 스포츠로 길들여지는 과정은 기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사회가 이방인, 괴물로 낙인찍고 배척해 버린 타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무의식을 성찰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

이다. 이렇듯 최근 청소년 문학이 빈곤, 소외계층, 여성차별, 아동인권 등 묵직한 사회적 주제들을 소재로 삼아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들을 생성해 내는 가운데 기실 저항을 무화시키거나 세속화해버리고 만다.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역시 저항의 세속화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앞서 보았듯이 미셸 페로의 동화는 편협한 남녀관을 설파하면서 남성에게는 재능과 야심을 통해 신분상승에 나서거나 입지전적 영웅의 길을 떠나도록 독려해 온 반면에 우아한 몸짓과 지고지순한 기다림의 양식을 수호하는 여성들을 이상화해 왔다. 이렇게 볼 때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결여하고도 당당한 명랑 소녀들은 동화가 수호해 온 보수적 여성상을 내파하는 도발이다. 그러나 엽기적인 소녀-여성들은 페미니즘 상업화 이후의 상투적인 캐릭터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은 계급, 성별을 막론하고 도전의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경계를 넘어 횡단하는 누구나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기계발 담론과 손잡는다. 자기계발문화는 저항을 상품화한다. 최근 성인들의 문학에서는 저항의 불가능성이 선언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 문학의 주인공들은 쉽게 전복하고 성취한다. 특히 청소년 문학에서 페미니즘과 자기계발담론이 손잡으면서 저항과 모험 플롯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계발담론은 삶을 자기책임과 자기실현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권력의 욕망과 손을 잡고 있지 않은가? 도전, 모험, 저항 담론은 청소년을 능동적인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기 보다 모든 것을 청소년 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는 음험하고 교활한 정치일 수 있다. 자기계발문화는 결국 개인에게 무한한 권력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소녀-여성의 성별이라는 또 다른 물리적 현실을 지워버린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려령, 『우아한 거짓말』, 창비, 2009.
 김혜정, 『하이킹 걸즈』, 비룡소, 2008.
 『닌자걸즈』, 비룡소, 2009.
 이옥수, 『키싱 마이 라이프』, 비룡소, 2008.
 이 현, 『우리들의 스캔들』, 창비, 2007.
 임태희, 『취를 잡자』, 푸른책들, 2007.
 이금이, 『유진과 유진』, 푸른책들, 2004.
 전아리, 『직녀의 일기장』, 현문미디어, 2008.

2. 단행본

-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333쪽.
 게오르그 루카치 저,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9, 12쪽.
 리타 펠스키 저,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여이연, 2010, 210쪽.
 에드리아느 리치 저, 김인성 역,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111쪽.
 잭 자이프스 저, 김정아 역, 『동화의 정체-문명화의 도구인가 전복의 상상인가』, 문학동네, 2008, 418쪽.
 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엮음, 황종연 역, 『현대문학·문화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57쪽.
 캐런 코우즈 저, 이미선 역, 『비체화와 청소년용 소설』, 『아동문학 작품 읽기』, 작은 씨앗, 2008, 220~225쪽.

3. 논문

- 권명아, 「수난사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진 민족 이야기」, 『문학 속의 파시즘』, 김철, 신형기 외 지음, 삼인, 2001, 236쪽.

- 김영옥,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아시아여성연구』 제48권 2호, 2009, 9쪽.
- 김예란, 「소녀성과 육체의 미디어화」, 『모바일 소녀@ 디지털 아시아』, 이동후·김예란 외 지음, 한울 아카데미, 2006, 64쪽.
- 김은하, 「애증 속의 공생, 우울증적 모녀관계-박완서의 『나목』론」, 『여성과 사회』 15호, 창비, 2006, 120쪽.
- 김은하, 「여성 주체의 발견과 저항공간으로서의 몸」, 『여성의 몸』, 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창비, 2005, 235~239쪽.
- 김은하, 「공포의 시대와 루저의 문화정치학」, 『문학들』, 2010, 문학들, 274~277쪽.
- 김현철, 「청소년은 누구인가?」, 『이팔청춘 꽃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인물과사상사, 2009, 18쪽.
- 나임윤경, 「10대 여학생, 현모양처 만들기 프로젝트」, 『이팔청춘 꽃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2010, 인물과사상사, 211~262쪽.
- 송경아, 「소녀들의 감수성, 시장으로 진출하다」, 『당대비평』 23호, 삼인, 2003, 328쪽.
- 오영숙, 「아빠와 소녀: 70년대 한국영화의 표상 연구」, 『영화연구』 42호, 2010, 200쪽.
- 정혜경, 「이 시대의 아이콘 ‘청소년’(을 위한)문학의 딜레마」, 『오늘의 문예비평』 2008년 겨울호, 해냄, 32쪽.
- 조은숙, 「근대계몽담론과 ‘소년’의 표상」, 『어문논집』 제 6집, 민족어문학회, 2002, 226~228쪽.

Abstract

A Study on Adolescent Literature and Return of 21st Girl
-Adolescent fiction of Woman Writer-oriented

Kim, Eun-ha

Recently, a girl is showing up as an active subject who cuts dominant culture and revolts against it. In the adolescent literature, the growth of girls is no more the sacrificial pass time where gains adopted feminist as entering the law of father. It can be to say that has resulted from the active creative activities of women writers since paternal authority fell and feminism popularized due to IMF. While a father is disappearing in the adolescent literature by women writers, 'the romance plot of an Oedipus family' is destroying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daughter is abslutized. Separation mother from daughter or betrayal is no more essential procedures of the growth; rather, recovery of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presented as a narrative goal. The girl in an adolescent literature is problematic character who represents the time after 'feminist literature' and 'feminism'.

However, while the influence of father is getting slight on the growth of adolescence, it is potentially showing up that mother-child relationship may be come in conflict and struggle. The illusion of omnipotent mother can be caused that puts the daughter under the mother. On the other hand, at last, the girls return to the adult body which can get sexual desire or which can get a function of being pregnant and giving a birth, not purity such as an idiot, or a poor victim.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w understanding of a girl who is not innocent child before differentiation of gender, but a main agent of a body. But, on the one hand, the girls in the reality makes their body be a place to have a pleasure or to overturn, for the adult artists, it is that the sex of adolescent can't legitimately be mentioned by them because they

have been experienced this as anxiety or fear. On the other hand, it felt out the possibility of new adventures by appearing girl losers cross over dichotomy but a repressive intolerance between the virgin and the villainess. For the meantime, in the fable-adolescent literature, when we consider that girls-women could not leave toward the road of adventure locked by the romance plot which is scattered everywhere, this change is breakthrough. However, we are concerning whether the feminism is holding hands with self-development discourse which can open a door of it for everybody who passes over a border arming challenge and self-confidence.

Key words : a girl, a plot of mother and daughter, loser, adolescent literature, feminism, anti-Oedipus narrative, self-development discourse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